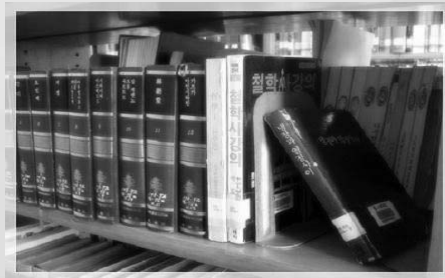




너도 철학을 아니?



강영구
 나사렛대학교도서관 계장
 ilyjs@hanmail.net



대출대로 학생이 하나 쭈뼛쭈뼛 다가온다. 늘 느끼는 느낌이지만, 나름대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보다.

뒤편래가 이 모양으로 생겼으니, 부모님께 A/S를 신청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섭섭한 생각이 든다.

나름대로 열심히 웃어줄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목소리까지 친절하려고 노력하는데..

“선생님, 책이 없어요”
 “찾는 책이 뭐예요?”
 “냉정과 열정사이요”
 “아, 그 책은 아마 다 대출되어서 남아 있는 책이 없을텐데요.”
 “아니에요, 한 권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요? 잠시만요..”

정말이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중 하나인 『냉정과 열정사이』.

다 대출되고 예약이 되어 있는데, 유독 한권이 남아 있는 것이 나타나 있다.

여러 가지로 찾아 보았지만, 분실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중이라도 찾으려면 연락 주기로 하고, 연락처를 받아 놓았다.

몇 일 후 아침 도서관을 개관하기 전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으며 서고를 돌던 중 철학서가 사이에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책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책이었다.

이른 아침, 서고에서 만난 반항기가 다분한 책 한권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책을 여기다 가져다 둔 학생에 대한 괘씸한 생각은 벌써 열람 업무를 담당하고 4~5년이 될 때 즈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이미 모두 지워 버렸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와서 쉬고 있었을까?’

‘니가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히 쉬고 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찾은 책을 손에 들고, 서고 창문을 열며 책을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과감히 일탈을 감행한 녀석의 용기에 대한 대견함과 그렇지 못한 내 삶에 대한 자괴감으로 가득하였다.

그런데, 하필 왜 철학 서가 사이였을까?

“너도 철학을 아니?” (웃음)